

# 웨슬리와 올더스케이트

안정섭 목사

안정섭牧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와 Emory University에서 M.Div 학위를 받았다. 현재 덴버 소재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이고, University of Denver/Iliff School of Theology에서 "웨슬리신학과 과정신학의 대화"로 Ph.D. 과정 중에 있다.



**목회를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점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단점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교회가 헌신을 요청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보고 오히려 장점을 개발하길 꺼려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당시 땅 끝이라 여겨진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고 1738년 2월 3일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그는 모라비안 목사인 피터 뵐러(Peter Bohler)를 만나 그와 신앙상담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And by him, in the hand of God, I was clearly convicted of unbelief and want of faith, whereby alone we are saved.”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나에게 없음을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웨슬리는 부족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민은 마치 하나님의 일에 물러서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물러서고자 하는 그에게 피터 뵐러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Preach faith, till you have faith, and then, because you have it, you will preach faith.” (믿음이 생기기까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확신이 생겨서 믿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 15분경,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한 작은 집회에서 누군가 읽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이제 확신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올더스케이트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뒤로 물러설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더스케이트의 기적은 믿음이 적어도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변화시킨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리므로 도리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고후 12:9). 우리 감리교인은 인간의 연약함에 매이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감리교인은 “은총의 낙관론”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웨슬리의 올더스케이트 기적은 은총의 낙관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말씀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원하실 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는 감리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